

P702

## Growing Pains for Korean Insect Databases

Soowon Cho

*Department of Plant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361-763*

초창기 국내에서 제작된 곤충의 종들에 관한, 즉 곤충다양성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것은 아마도 1990년부터 제작에 들어간 곤충계통분류연구센터의 문헌데이터베이스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dBASE3+ 및 4로 제작되었었는데, 그 결과물은 이후 프린트되어 책으로 출간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정보 자체가 찾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이 후에 곤충계통분류연구센터(CIS)는 곤충분류연구회로 개명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도감식 카탈로그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또한 이들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기도 하여 현재까지도 일부는 활용되고 있다. 이후 여러 기관과 개인을 중심으로 곤충의 분류학적 또는 생태학적 자료들을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인터넷이라는 가히 혁명적인 매체를 이용해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국내에는 그 동안의 곤충관련 연구조사자료들에 대한 소규모 데이터베이스체제에서 더 나아가 이들을 정리 연합하여 대규모의 통일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과기부, 농진청, 환경부, 그리고 정통부와 산림청 등이 이러한 곤충 다양성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서로 앞장서려고 애쓰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과기부는 Factual DB사업을 통해서, 농진청은 자체적으로 축적하고 개발한 해충을 중심으로 한 분류 및 생태학적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환경부는 자연환경조사 등의 축적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앞으로 마련될 표본관을 겨냥하여, 그리고 정통부는 산림청/수목원과 함께 표본DB를 중심으로 이러한 시도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는 곤충이 여느 생물군에 비해 높은 생물다양성을 보이고 있고 또한 앞으로 추가연구할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특히 매력적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이로 인하여 여러 정부기관에서 협력하는 하나의 단체가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합법적이라는 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까지 정부 차원에서 담당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단시간에 완성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부기관에 다른 정부기관들이 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의 중심을 양보하기 보다는 다양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간이 걸려도 어떠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가 더 낫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먼저 국내의 주요 곤충관련 데이터베이스들을 조사하여 그들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 보았다. 우선 국내에서 비교한 정부기관내 곤충관련 데이터베이스로는 과기부의 BRIC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자료, KISTI의 곤충관련 사실정보데이터, 농촌진흥청 농과원의 곤충자원관 및 병해충종합정보, 그리고 사이버곤충생태원, 정보통신부와 산림청의 곤충 및 곤충표본 데이터, 그리고 환경부의 자연생태라이브리리와 환경지리정보들이다. 또한 외국의 곤충관련 연구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예를 통하여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PEET 사이트들을 통하여 우리와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국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서 앞으로 고려할 점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다음은 예로써 활용된 사이트와 내용들이다. 1. 농진청 사이버곤충생태원; 2. 농진청 곤충자원관; 3. 농진청 곤충표본관; 4. 농진청 병해충종합정보; 5. 환경부 자연생태라이브리리; 6. 환경부 환경지리정보; 7. 과기부 BRIC 한국의 생물; 8. 과기부 KISTI 생물자원정보DB; 9. 과기부 KISTI 맵시벌과; 10. 과기부 KISTI 나비목; 11. 과기부 KISTI 해충 응애; 12. 과기부 KISTI 곤충문헌DB; 13. 정통부 산림청 곤충DB 및 곤충표본정보.

In the past, probably the first Korean insect database was from the Center for Insect Systematics, which was more than 10 years ago where the insect biodiversity related papers were databased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at was basically for publishing a paperlist by the CIS, and the data were lost until 2000 when such data were reloaded as an interactive database for insect diversity related papers. Since the first database for Korean insects, some personal and institutional databases were built with the help of the Internet accessibility. In recent years, as some international trials of gathering world biodiversity informations are initiated along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everal Korean governmental ministries are also focusing on building Korean insect databases (KIDs) and trying to be the center for the KIDs. However, in terms of financial support on such databasing informations, there seems to be a big difference that we the systematists should cry for the future. In the present study, I compared the KIDs by some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also view the difference between the KIDs and PEET databases from America. Through the comparison, I see what could be our direction to focus on to bring more trained insect systematists for the future. I think this is a growing pain for better KIDs in the future. The followings are the list of the Korean Insect Databases I used as examples. NIAST, Cyber Insect Garden; NIAST, Insects Resources of Korea; NIAST, Insect Collection; RDA, Integrated Pest Management System; NIAST, Pest Information System; NHRI, Horticultural insects; NIAST, Silkworm; ME, Ecorainbow, Ecosystem Video; - A documentary movie; - Nature class; ME, Environ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MST, BRIC; MST, KISTI, Biodiversity Information Network Center; NCA, Knowledge (Korean Forest Service), Insect.